

저가매수 기회?... 테슬라·티큐·속슬 ‘줍줍’

해외주식 Click

기술주, 3배 레버리지 상품 등
美 증시 하락세에도 집중 매수

테슬라 2억5070만달러 '1위'
티큐·속슬·애플 등 뒤이어

〈국내 투자자 해외주식 순매수 상위 종목〉 (기간: 5월 9~15일, 단위: 달러, 한국예탁결제원)

순위	종목명	순매수 금액
1	테슬라	2억5070만
2	PROSHARES ULTRAPRO QQQ ETF(TQQQ)	1억7102만
3	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 (SOXL)	6474만
4	애플	2694만
5	VANGUARD S&P 500 ETF(VOO)	2620만
6	엔비디아	2355만
7	BMO MICROSECTORS FANG+ INDEX 3X LEVERAGED ETN (FNGU)	1944만

미국 기술주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은 미국 기술주를 상징하는 테슬라와 3배 레버리지 상품인 티큐, 속슬을 집중 매수했다.

최근 들어 미국 증시는 기술주 위주의 하락세를 보이며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 높아진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 등이 이유로 꼽힌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5월 9일~15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순매수 1위 종목은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다. 총 2억5070만달러의 순매수세가 유입됐다.

최근 테슬라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자 주가가 덩달아 하락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인 테라와 루나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유동성 축소 압력을 받는 셈이다.

지난 16일(현지시간) 테슬라는 전

거래일 대비 5.88% 내린 724.37달러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2월 테슬라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테슬라는 총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다. 향후 회사의 자본 중 일부를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자사 제품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순매수 2위와 3위 종목은 '티큐'로 불리는 프로셰어즈 울트라프로 QQQ ETF(TQQQ·PROSHARES ULTRAPRO QQQ ETF)와 '속슬'로 불리는 디렉시온 데일리 세미컨덕터볼 3X ETF(SOXL·DIREXION DAILY SEMICONDUCTORS BULL 3X SHS ETF)다. 같은 기간 1억7102만달러, 6474만달러의 순매수세가 이어졌다.

티큐는 나스닥100 지수의 수익률 3배를, 속슬은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3배를 추종한다. 주가가 하락할 경우 3배의 손실이 발생하는 초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외에도 미국 기술주 애플(2694만달러)과 엔비디아(2355만달러)가 각각 순매수 4, 6위를 차지했다.

배당주 ETF인 벵가드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 ETF(VOO·VANGUARD S&P 500 ETF)와 아이셰어즈 코어 S&P 500 ETF(IVV·ISHARES CORE S&P 500 ETF)는 순매수 5, 8위에 등장했다. 각각 2620만달러, 1567만달러가 유입됐다.

VOO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등 미국 시장에서 엄선된 50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안정적인 실적과 좋은 기업들을 꾸준히 편입하며, 지난 5년간 연평균 배당성장률도 5%가 넘는다. 블랙록자산운용이 운용하는 IVV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 SPY에 이어 두번째로 거래 규모가 크다. SPY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기술주 10개 종목의 주가를 3배로 추종하는 BMO 마이크로섹터스 FANG+ 인덱스 3X ETN(FNGU·BMO MICROSECTORS FANG+ INDEX 3X LEVERAGED ETN)과 미국 기술주 15개 종목의 주가를 3배 추종하는 BMO 마이크로섹터스 FANG 이노베이션 3X ETN(BULZ·BMO MICROSECTORS FANG INNOVATION 3X LEVERAGED ETN)은 7, 10위를 차지했다. 두 상품 모두 미국의 몬트리올 은행(BMO) 마이크로섹터스의 대표적인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이다. 각각 1944만달러, 1173만달러를 순매수했다.

FNGU는 알리바바, 알파벳A, 아마존, 애플, 바이두, 페이스북, 넷플릭스, 엔비디아, 테슬라, 트위터 10종목을 골고루 담고 있다. BULZ는 FNGU와 다르게 알리바바, 바이두 등 중국 주식 없이 미국의 기술주만 구성돼 있다. BULZ는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AMD, 페이스북, 알파벳A,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넷플릭스, 인텔, 세일즈포스닷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줌, 스퀘어 15종목이 담겨 있다.

이어 쿠팡이 순매수 9위 자리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총 1221만달러가 유입됐다. 올해 1분기 쿠팡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자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금투협 엑셀 활용 기업평가 집합 교육생 모집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엑셀을 활용한 기업가치평가' 집합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엑셀을 활용한 기업가치평가'는 오는 6월 7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6월 29일부터 개설된다. 학습목표는 재무제표 추정, 다양한 가치평가 모형 등을 통해 실제기업의 가치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수강대상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가치평가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다.

특히 엑셀을 활용해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 등에 필요한 투자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봄으로써 투자타당성을 검증해볼 수 있다.

교육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미경 기자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

신한금융투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해외주식 거래 및 대체 순입고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외주식 입고 이벤트'는 이벤트 신청 후 타사 해외주식을 신한금융투자로 500만원 이상 대체 순입고 및 해외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리워드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타사계좌의 해외주식을 신한금융투자로 순입고한 금액의 합이 500만원 이상인 고객에게 2만원 스타콘, 1억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30만원 등 금액별로 리워드를 지급하고, 순입고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고객에게는 최대 500만원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혜택은 해외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대상으로 제공된다.

박미경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ETF 2종 신규 상장 이벤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신규 상장하는 'TIGER 미국 스탠다드앤드푸어스500(S&P500)배당귀족 ETF'와 'TIGER 미국나스닥넥스트100 ETF'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TIGER 미국S&P500배당귀족 ETF와 TIGER 미국나스닥넥스트100 ETF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KB증권, 유진투자증권, 키움증권에서 진행된다.

KB증권은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상 ETF 각각 1억3천만원 이상 거래 고객 중 선착순 5명에게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유진투자증권은 5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대상 ETF 합산 일 거래금액 1억원 이상 달성 시 문화상품권 2만원을, 3억원 이상 달성 시 3만원을 지급한다.

원관희 기자 wkh@

“임대차3법 개정하면 부작용 많을 것”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충분한 해결책 검토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큰 틀에서 임대차3법의 변화를 모색하면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히(해결책)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최근 다른 집을 구했다. 평수를 줄였는데 데도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나 올랐다. 동일아파트 단지 내 이주가형 성 문제 등을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서울형 고급 임대주택' 공약 이행 시 공사비와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과거와 달리 임대료 책

정은 평수가 아닌 소득 연동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더 많은 임대주

김대환 기자 kdh@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용역 입찰 공고 두산건설, 7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까지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42개월이다. 용역금액은 287억원이다.

사업규모는 1만1970㎡ 부지 면적에 연면적 약 2만1000㎡다. 지하 2층~지상 3층의 규모로 추진된다.

입찰이 마감되면 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오는 2025년 개관 예정이다. 우리나라 도시·건축 유산의 자료 보존, 전시,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거점시설이다. 현재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에 조성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개공모를 통해 위촉한 전시감독(김성홍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과 함께 전시주제 및 기본 콘셉트 등을 담은 박물관 전시기획안을 마련했다.

김대환 기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03억 유상증자로 미착공 PF 상환

두산건설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2878억원, 영업이익 103억원을 기록했다.

두산건설은 17일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지난 2020년 3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지난해 말 실시한 제3차 배정 유상증자로 마련된 자금을 통

해 미착공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의 차입금을 상환해 유동성 위험이 해소됐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에서는 지난 4월 미착공 프로젝트의 유동성 위험의 해소와 지속적인 영업이익, 순이익을 달성한 두산건설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품질경쟁력을 앞세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kdh@